

효지도사 활용중심으로 본 효인성교육 실천 사례 연구

- ‘에스컬리너교육연구소’ 사례를 중심으로 -

김민석(에스컬리너교육연구소대표/성산효대 동문회장)

목 차

- I. 서 론
- II. 효지도사 효교육원 운영 실태
 - 1. 효지도사 양성과정과 현실
 - 2. 효지도사 프로그램 개발 현황과 능력 향상
 - 3. 효지도사 효교육원의 역할과 발전 대안
- III. ‘다효교육’을 지도할 효지도사 양성 및 운영 방안
 - 1. 팬데믹 전후의 효지도와 융복합 인성교육
 - 2. ‘다효교육’ 효지도사 양성 방안
- IX. 결론

I. 서 론

‘효(孝, HYO)’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질서를 밝힌 도덕 규범이다. 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인류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서 ‘효행’은 효도와 예절의 합축된 의미이다. 효행교육의 중요성은 공자의 어록(語錄) 논어에서 ‘무릇 효는 덕의 근본이요 모든 가르침이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성경의 십계명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교육의 근본이요, 시작인 효행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중시되어 실천되어왔으나, 오늘날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급격한 경제 성장과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인간성 상실을 초래하는 비인간적 도덕관이 우리 생활에 침투되어 가정교육과 평생교육은 물론 학교교육까지도 정상 궤도를 이탈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연구자는 사회 발전을 위한 효인성교육의 필연성과 제4차 산업혁명 및 팬데믹 상황에서의 교육방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를 먼저 논하고자 한다.

첫째, 전통적 의미의 효는 부양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현대적 의미의 효(HYO)⁹²⁾는 하모니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세대공감⁹³⁾적 측면에서 서로 배려하고

92) 최성규, 『효신학개론』, 성산서원, 2004. 표지문.

* 효(HYO)를 Harmony of Young and Old의 약자로 표현함.

93) Naver 탐색, 세대(世代)는 사전적으로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세대 개념은 동시대의 사람들이다. 이 때 동시

존중하면서 질서속의 사랑을 이끌어 내는 효와 교육이 융복합하는 형태의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⁹⁴⁾

둘째, 교육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참된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을 말하며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가장 중심적인 과제이다. 인격교육⁹⁵⁾은 전인교육이요. 전인교육은 인성, 지적, 기능을 고루 갖춘 교육을 의미한다. 올바른 전인(全人)교육을 향한 인성교육은 인간의 성품과 성격을 가르치는 교육으로서 인간의 성품의 내면적인 측면은 감정과 의지로 표현된다. 감정은 어떤 일을 하려는 동기를 말하고 효도교육⁹⁶⁾이 이에 속하며 이는 인간의 사랑의 감정을 통해 부모공경으로 이끌어 내는 교육의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셋째, 효교육은 21C 세계화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점이다. 현대는 세계화 시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효행교육을 이야기하면 참으로 고무한 말을 한다고 한다. 세계화 시대 세계인 교육으로서 지금 우리는 21c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현재의 교육을 통해 미래의 인간 육성 내지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1c 세계화 시대는 어떤 인간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일자리 창출 및 출산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⁹⁷⁾ 특히 세계경

대란 것은 자연적 연령의 동시대성보다는 역사·사회적 공통성을 지닐 수 있는 동시대성으로 구성된 인구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역사·사회적 상황이 동질적인 공간에서 운명을 함께하고 공통된 체험과 경험을 통해 독특한 문화 양식을 표현하는 집단이 바로 세대이다. 세대 차이(世代差異)는 서로 다른 세대들 사이에 있는 감정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가리킨다. 세대차이는 신세대와 구세대 사이의 차이점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일상 언어의 말이다. 1960년대 서부국가에서 나타난 자녀와 부모간의 문화적 차이를 나타내는 말로 처음 사용되었다. 비록 나나 기존의 역사를 통해 세대 간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1960년대 두 세대 간에 존재했던 급속한 문화적 변화는 기존의 세대 차이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음악성향, 문화, 정치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 역사적으로 기록적인 이 젊은 세대 층의 영향으로 세대 차이는 극심해졌고 젊은 세대의 영향력은 확대되었으며 기존의 사회문화에 반항하는 성향을 띠었다.

94) 본 논문의 부록참조.

95) Naver 탐색, 성품윤리(Character Ethics)와 성격윤리(Personality Ethics)의 구분에 대해 살펴본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성공적인 삶의 열쇠를 찾기 위해 과거에 출간된 성공 관련 저작물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 건국을 기준으로 150년간 나온 문헌 대부분이 성품윤리(Character Ethics)라고 부르는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언행일치, 겸손, 충성, 절제, 용기, 정의, 인내, 근면, 소박함, 순수함 등이 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후부터 성공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대인관계를 원활 하게 해주는 성격, 대중적 이미지, 태도처럼 기법과 기술이 성공에 더 크게 작용했 다고 본 것이다. 성품윤리에서 성격윤리(Personality Ethics)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코비는 진정한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성품윤리를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바른 아이로 키우기'의 저자 토머스 리코나는 "언제나 한 나라의 기본은 국민총 생산(GNP) 과학영재 군사력이 아니라 국민 인격에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가 로저 밥슨도 "모든 경제 시스템의 성공은 올바른 리더와 올바른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결국 국가의 미래는 국가 인격에 달려 있다"고 했다.

96) 우리는 이것을 효행이라고 하며 따라서 예로부터 이미 유가의 효경에 이르기를 「子曰 天地之性人爲貴/人之行 莫大於孝」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천지에서 받은 성품 중에서 사람이 가장 귀하고 사람의 행실 가운데 효도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효를 설명. 성경에서는 효를 인간교육의 효시로 주장되어 왔다. 이미 2천여년 이전에 효행이야말로 성품교육의 으뜸으로 표현. 의지는 (예절교육은 성품의 다른 면 즉 어떤 일을 하려는 의지) 예절을 지키려고 한다든지, 질서를 지키려는 일, 공동체 모임에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라는 생각은 모두 인간의 의지에 속한 성품개발교육. 성격의 내면적인 측면은 소극적 성격과 적극적 성격, 긍정적 성격과 부정적 성격, 내성적 성격과 외성적 성격으로 구체화 한다.

97) 김민석, 『효행인성개발론』. (인천: 에스컬리너교육연구소, 2008), 2쪽.

제시대에 성공적인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다. 경제적 세계화에서 윤리적 세계화 의식(倫理的 世界化 意識)으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말해 국가나 국민 개개인이 전 근대적인 의식이나, 자국적(自國的) 의식만으로는 결코 세계화에 성공할 수가 없다고 연구자는 생각한다. 다양한 국민과 문화를 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 윤리의식의 변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다문화교육(多文化教育)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세계화의 성공은 세계인(世界人)이어야 하며 세계인은 세계시민(A citizen of the world)을 뜻한다⁹⁸⁾.

넷째,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인성교육과 이의 교육방법의 변화의 분수령이 된 융복합 교육에 대한 정책적 내용은 부록⁹⁹⁾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2007년에는 고령사회가 처한 문제 해결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얻는 목적으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효행장려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하도록 하였으며, 이의 법률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시효행장려지원센터 설립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현재 한국효운동단체총연합회(약칭: 한효총) 창립 20주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한효총 20주년에 이른 지금 효인성교육 강화는 필연적인 과제이며, 효지도사 교육원 운영 방향 검토와 함께 효지도사 육성, 활용, 새로운 역할에 대해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론적 근거 제시보다는 연구자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한 효인성교육의 경험적 사례를 제시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 사례는 팬데믹 전후의 융복합 효인성 교육과 효지도사 양성 및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제시하였다.

II. 효지도사 효교육원 운영 실태 및 발전 방향¹⁰⁰⁾

1. 효지도사 양성 과정과 현실

효지도사 모집 방법 및 형태는 각 교육원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다. 각 지역의 효지도사 양성 사례는 본 연구에서 일일이 기록할 수 없지만 광역자치단체 및 일부 기초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효지도사 양성 사례¹⁰¹⁾는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현재

98) 김민석, 『효행인성개발론』. (인천: 에스킬리너교육연구소, 2008). 2쪽.

99) <부록1> 4차 산업혁명의 생존과인성교육의 변천-융복합 시대의 공교육 혁신

<부록2> 정부(교육부)의 인성교육비전 수립 및 실천 (2012~ 2040).

100) 본 내용은 각 지역 효인성교육원에 따라 매우 상이 함으로 본 논문에서는 성산효대학원대학교와 협력적 관계로 맺어진 실태와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함.

101)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에 운영되는 효인성교육원은 강원(이만복), 대구(김경화), 대전(이정식, 박상도), 서울(김남권), 세종(임창철), 울산(이수영), 인천(박희원), 전북(소순갑), 충청(최기복) 등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에 운영되는 효인성교육원은 과천(최중수), 경기안산(정희찬), 경기하남(유철식), 서울강동(김재성) 등이 있다.

전국 각 지역의 효교육원에서는 성인교육 중심의 효지도사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효지도사 육성 예산에 의존도가 매우 높음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2. 효지도사 프로그램 개발 현황과 능력 향상

현재 각 교육원에서 배출된 효지도사는 약 1만여명에 이르며, 이들에 대한 교육지도 능력 향상이 매우 필요한 현실이며, 효지도사 취득 이후 개인별 지도 능력 보강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3. 효지도사 효교육원의 역할과 발전 대안

우리 사회의 각종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효인성교육원의 역할 증진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며, 이곳에서 배출되는 효지도사들에게 다각적인 효인성교육프로그램을 상호 연계, 공유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역할 증진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와 팬데믹 전후의 교육지도 상황이 융복합으로 전개됨에 따라 효교육원에서도 이에 바탕을 둔 교육지도 방식이 긍정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사명감있는 효지도사의 모집, 역량있는 효교육실천, 효인성교재의 출간, 효교육활동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개발등의 문제해결 및 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 특별히 효지도사 개인역량 강화와 함께 효교육원 자생능력 강화를 통해 지역 곳곳에 효교육원의 설립이 날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Ⅲ. ‘다효교육’을 지도할 효지도사 양성 방안

1. 팬데믹 전후의 효지도와 융복합 인성교육의 실천

가. 행복한 가정 만들기 효사랑 영상 교육 실시

제3장 본론에서는 연구자가 현장에서 실천한 융복합인성교육과 ‘다효교육’ 분야 효지도사 양성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천광역시효행장려지원센터 남동효행교육원¹⁰²⁾에서는 지역 회원의 각 가정을 대상으로 8차에 걸쳐 행복한 삶 갖기 주제를 통하여 행복한 가정 만들기 영상 교육을 전개 하였다. 영상교육과 동시에 상황보고를 지역사회에 공지하였다. 전국 각 효교

102) 인천광역시효행장려지원센터 남동효행교육원: 2019년도 9월 인천광역시 각 구단 위에 설치한 효행교육원을 말함.

육은 지역사회에서 통용되는 기관의 명칭으로 효사랑으로 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효지도사를 통해 실시가 가능하다고 본다.

표1) 행사 진행 결과 보고서

제1회 효사랑으로 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행사진행 및 결과보고

1. 제1차 효사랑교육 : 21. 7. 22(목) 오후1:00~2:00 (대면 및 비대면)
2. 제2차 효사랑교육 : 21. 8. 9(월) 오전11:00~12:00 (대면 및 비대면)





3. 회원들에게 효사랑운동과 다효의 융합교육을 실천(온라인 무료 교육)하였습니다.
 *회원 자녀(유아 만3세~5세)는 효인성교육(효,언어,국악교육)을 재택에서 영상으로(무상)지원 받습니다.
주최 : 인천광역시효행장려지원센터
주관 : 남동효행교육원

표2) 주제별 효인성교육을 영상교육으로 실시함

- 주제:
- 1주제:가정공동체에서의 나는 누구인가?
 - 2주제:부부공동체에서의 내삶의 행복과 불행의 극복
 - 3주제:부부공동체에서의 부모세대의 반복된 삶에서의 승화
 - 4주제:가족공동체에서의 행복-갈등의 문제 해결
 - 5주제:가족공동체에서의 Young-Old의 차이와 극복을 위한 Harmony
 - 6주제:사회공동체에서의 성공적 관계형성의 나
 - 7주제:세계공동체에서의 나의 생애의 소명과 역할
 - 8주제:행복한 나의 삶을 위한 길

나. 효인성교육 - ‘다효교육’¹⁰³⁾ 콘텐츠 개발 지원

에스컬리너교육연구소¹⁰⁴⁾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2019년 12월부터 발

103) 다효교육의 본래 의미는 우리의 정신문화인 효교육과 예절문화인 다도교육을 융합하는 교육이다. 현재는 점점 더 교육의 확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두가지 의미로 사용 되어지고 있다. 첫째;우리민족의 가장 중요한 정신문화인 효와 예절문화인 다도를 통하여 사람의 올바른 행동인 효와 예의범절을 배우면서 21c인성교육의 리더를 양성하고자 에스컬리너교육연구소[JERI]에서는 이를 『다효(茶孝)』, 『효다도』라 명명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이의 교육브랜드명을 다효(茶孝)라 이름 하였다. 둘째:다효의 넓은 의미는 효의 모든 생활에서 활용 되어진다. 특별히 인간생활의 전반에 적용한다. 다효 『多孝』의 생활을 통해 21c 인격을 갖춘 효리더자 육성에 목적을 둔다. (특허청 등록: 제40-107751호).

104) 김민석, 국제청 사업자등록, 150-19-01920, (2001) *현재 JERI평생교육센터, 원격평생교육센터, 특수주간신문 JERI교육, 인터넷신문 에듀휴먼을 포함한 기업이다.

JERI- JESCUINO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에스컬리너교육연구소)의 영문 머리글[JERI] 단축

생된 전세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 교육의 전면적인 방향을 융복합으로 전환 하면서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이를 각 교육기관에 보급하여 활용토록 하였다.

적용방식은 매월 인성교육 주제별 내용을 ppt영상으로 개발, 교재와 함께 보급해주 어, 영유아들에게 효인성교육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는 보다 쉽게 효인 성교육을 지도할 수가 있다.

표3) 콘텐츠 영상 예시



다. 효지도사 영유아 다효교육 활동

효지도사는 매월 각 지역 영유아교육기관을 순회하면서 효사랑차 나눔을 통한 다 효인성교육을 지도한다.

사진1) 효지도사 영유아 교육기관 방문 다효교육 활동



명이다. 에스킬리너(JESULINOR)는 1994년 설립된 기업으로 'With JESUS & Just, Spirit Culture in World'의 약칭이며 합성어로서 '사랑과 정의로 세계 속의 정신문화 창조' 의미의 교육 이념어이다. '교육에 의한 건강한 세계인 육성'을 교육목표로 하며 '건강한 영성 · 건강한 정신 · 건강한 문화 · 건강한 신체' 4대 교육목표이다.. 학습방법은 인간교육표방운동-[건강한 교육]-으로 교육된다. (특허청 등록: 제028612호).



라. 효지도사 초등생 다효교육 활동

효지도사는 매월 각 지역 초등교육기관을 순회하면서 효사랑차 나눔을 통한 다효 인성교육을 지도한다.

사진2) 효지도사 초등교육기관 방문 다효교육 활동



2. ‘다효교육’ 효지도사 양성 방안

가. 효지도사 양성 및 시니어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지역 주민에게 효인성교육을 지도함으로 이들을 통해 효지도사 양성 배출이 가능하며, 이들 중 다수가 시니어로서 본사의 교육을 통해 효

다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들의 품격에 어울리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현재 서울광역시 은평구지역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사진3) 효지도사 지역아동센터 방문 다효교육 활동



나. 효지도사 능력 배양을 위한 역량 강화

효인성교육지도의 강화와 효지도사 능력 강화를 위해 년중 정기적인 그룹별 연수가 필요하다. 본사에서는 최근('22. 8월) 1박2일 야외연수를 통해 전문적 효교육지도 능력을 강화하였다.

사진4) 효지도사 역량 강화를 위한 다효교육 연수 활동



표4) JERI 0321교수진 결성 회합 공지문

안녕하십니까?
 귀하를 모시게 되어 본사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임명장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제1차 에스컬리너교육연구소 소속 교수진 임명식 및 간담회를 겸한 일정을 다음과 같이 개최코져 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뜻 깊은 시간되길 바랍니다.
 *일시: 2022. 7. 11 (월) 오후 5시
 (오후3시~5시까지 BREAK TIME이므로 5시까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 한옥마을 (송도 경복궁)
 인천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80(센트럴파크)한옥마을 八珍齋 (032)834 5432
 *석식: 오후 5시부터
 *임명장 수여 및 간담회: 오후6시~7시 (최종 7시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2. 7. 4 에스컬리너교육연구소
 대표 효학박사 김민석 올림

표5) JERI 0321교수진 야외 다효지도사 통지문안

안녕하세요? 축복의 비가 내리는 수요일입니다.
 다효지도자반 연수가 있어서 일정 알립니다. 미리 시간 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 제목: 다효지도자 연수과정
 ♡일시: 8. 5~8. 6 (1박2일)
 ♡장소: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
 # 추후에 세부적인 일정 공지 합니다.
 [이점자 고리울(어) 원장님] [오후 12:59] 다효 지도자 워크샵
 • 일시:8월5일(금) 오후 2시입실 -6일(토)10시 퇴실
 • 장소:YMCA국제청소년문화센터
 • 12인실 예약됨
 • 저녁식사 예약완료
 -민속마을
 -오후6시
 ‘평생교육원 Workshop’에 분위기가 진지하고 진취적이어서 사회구성원 핵심 인물들에게 교수님들의 연구와 학술들을 교육자로서 가르쳐 비전을 심고 열매를 맺는데 귀 평생교육원이 교두보가 되길 기도하는맘으로 소원합니다!
 부디! 귀 평생교육원 교수님들의 배우고 연구하신 그 교육들을 그열정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가르쳐 개몽하는 세상이 되어갔으면 합니다!
 담임교수님의 지도 아래 학술회의를 도모하려고 모이신 모습이 흡사, 독립투사들이 임시정부에 회집되어 모여있는 모습과 Overlap 됩니다!
 의미있고 귀한 시간들 보내시고 귀환하세요! 감사하고 기도하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사진5) 효지도사 야외 연수 모임을 통한 다효교육 연수 활동



다. 우수 효지도사 교육기관 순회 지역 확산

이들중 우수한 효지도사로 하여금 본 연구소 교수진으로 임명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 지역별 순회 연수를 실시토록 하였다.

사진6) 우수 효지도사 교육기관 방문 현지 교사 다효교육 연수 활동



V. 결론

지금까지 서론에서 제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 전후의 현실에서 현대적 효개념의 새로운 정립과 효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세계화시대 윤리적 세계화 의식의 변화, 융복합효인성교육의 이해, 효지도사의 양성방안에 대하여 한효총 산하 효교육원의 나아갈 새로운 방향에 대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효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현장에서 실천한 사례와 부록의 사례¹⁰⁵⁾를 통해 본 연구자의 효교육원의 비전을 제시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앞서의 서론과 본론과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효지도사의 막중한 역할은 그 어느 시대보다 더욱 막중하다. 제1차 산업혁명에서 제3차 산업혁명까지는 기술의 발달적 측면에서 거기에 부합하는 인재가 육성되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의 AI 인공지능시대는 기술을 뛰어넘는 인간의 성품을 중시한 인격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다. 다시 말해 가정중시¹⁰⁶⁾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행복한 가정을

105) <부록3> 효사랑운동 회원을 위한 교육 지원 사례.

<부록4> 효사랑운동 회원 효사랑차 나누기.

<부록5> 효지도사 능력 강화를 위한 원격평생교육센터 설립.

<부록6> 효지도와 인성교육 지속적인 교재 발간.

106) Naver 탐색, 가정은 최고의 안식처이다. 사랑과 이해로 서로를 감싸준다. 대가없는 희생과 베풀이 가득한 곳이다. 나무의 뿌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역할까지 못 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아

이루는 가장 소중한 덕목의 제1요소가 현실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효교육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극도로 사회적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매일의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다. 참으로 애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상당히 많은 뉴스가 존속상해의 소식, 남, 녀간 치정뉴스 등이 일어 남을 볼 때 우리 사회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인간의 행복은 가정이 무너지고, 부모 자녀 관계가 어긋나면 거기서부터 불행은 시작된다. 왜, 효인성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깨우쳐야 하는 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성경의 10계명 중 인간과의 언약에서 제일 첫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다.

따라서 한효총 창립 20주년에 즈음한 효교육원은 지속적 프로그램 연구 개발, 상호 네트워크 구축 연계, 영유아교육에서 시니어 전생애에 걸친 효인성교육, 지자체 협력, 국가의 정책 수립과 지원을 통해 하루속히 효교육원 자생적 운영의 틀을 설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때 효교육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최선의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끝으로 효교육원의 효에 기초한 인성교육은 교육의 시작이며, 효생활화 안착의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한효총 20주년 이후 전국 곳곳에 효교육원의 설립을 통한 효교육원의 발전과 교육의 효과는 반드시 가정의 변화,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마침내 이 나라를 살리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민석, “효행인성개발론”. (인천: 에스컬리너교육연구소), 2008.
2. 김민석, “언어능력개발론”. (인천: 에스컬리너교육연구소), 2008.
3. 교육부, 인성교육비전 수립 및 실천 (2012~ 2040).

니 된다. 1852년 4월 10일 유럽 각지를 방랑하던 미국시민 '존 하워드 페인'이 알제리에서 사망했다. 31년이 지난 뒤 군함으로 그의 유해가 본국으로 운구 되어졌다. 유해가 뉴욕에 도착하던 날, 부두에는 뉴욕 시가 생긴 이래 최대 인파가 몰려들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수 많은 시민들이 조의를 표했다. 그는 권력자도, 돈 많은 재벌도, 위대한 과학자도 아니었다. 평범한 시민이 어떻게 전 미국인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다. 원제목은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으로 잘 알려진 명곡이다. 그가 이 노래를 지은 것은 프랑스 파리에서 돈 한 푼 없는 비참한 떠돌이 생활을 할 때였다. 평생 결혼을 하지 못했던 그는 가정이 없는 외롭고 처절함을 맛보았기에 가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이 가사를 썼던 것이다.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기에 그 어떤 유명한 작곡가보다도 더한 존경을 받았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가 있어도 좋은 가정은 살 수가 없다. 유산다툼을 하는 부자보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하는 서민이 풍요롭고 행복하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퇴근 후 집 뒤뜰에 있는 낡은 창고에서 연구로 밤을 샜을 때 모두들 미친 짓이라고 비웃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꿈이 이루어 질 것'이라며 격려와 믿음을 심어 주었다. 겨울밤에는 추위에 떨면서도 남편을 위해 곁에서 등불을 비추어 주기도 했다. 그가 크게 성공했을 때 기자가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내 아내의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훗날 고향에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지었다. 대부호가 살기에는 매우 작고 평범한 집이었다. 주위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자, 그가 말했다. "가정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해도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 바로 가장 위대한 집이 됩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가면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글이 있다.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집보다 더 축복받고 아름다운 집은 없다.

효지도사 활용중심으로 본 효인성교육 실천 사례 연구

- ‘에스컬리너교육연구소’ 사례를 중심으로 -

주영애(가정학 박사, 성신여대 교수)

시대변화는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 이전 시대를 주도했던 가치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지만 세대공감 측면에서 배려와 존중, 질서 속에서 사랑을 이끄는 융복합적 효(HYO) 중심의 가치지향적 태도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이는 후세대들이 필요로 하는 시대의 요구에 적합한 인성교육 방법이 강구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에 ‘효지도사 활용중심으로 본 효인성교육실천 사례 연구’는 AI와 메타버스 세계가 일상적 삶에 투영되는 세상에서 확산적 개념인 효(HYO)의 실천을 조명해 보고, 향후 발전적 실천을 제안한 시의적인 연구라 하겠다.

본문에서는 효지도사 양성과정, 프로그램개발, 효교육원의 역할 등 효교육원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차(茶)와 효(孝)를 복합한 ‘다효교육(茶孝教育)’을 지도할 효지도사양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효지도와 융복합 인성교육 방안을 제안한 실천 사례를 보여주었다. 전국에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운영되는 효인성교육원을 통해서 배출된 효지도사가 약 1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보다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자격취득 후 지도사들이 역량강화(empowerment)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효인성교육프로그램의 상호연계와 공유, 4차산업혁명 및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융복합 지도 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사명감있는 효지도사 모집, 역량있는 효교육실천, 효인성교재출간, 효교육활동 프로젝트의 개발 등 보완, 그리고 효교육원의 자생능력 강화도 요청됨을 밝혔다. 이는 매우 적절한 문제의 제기이자 대안 모색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효교육’을 지도할 효지도사 양성 방안으로 교육콘텐츠 개발지원, 효지도사의 영유아 다효교육활동, 초등학생 다효교육활동, 지역아동센터 다효교육활동 사례와 더불어 효지도사양성 및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효지도사 역량강화를 위한 다효교육연수활동, 우수 효지도사의 교육기관 순회지도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 내용들을 통해 효지도사들의 활동에 대해 보다 잘 인식할 수 있었으며, 향후 지도사들의 역량강화의 필요성도 보여준 고무적 사례라 판단된다.

토론 논고를 토대로 효인성교육 확산과 실천을 위한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첫째, 효교육원에서는 특화프로그램이 공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명확한 용어 사용을 해야 한다. 효교육 융복합 프로그램은 활동중심 매체로 다도(茶교육, 茶예절),

국악을 활용하여 효교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조시키고, 효의식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효를 실천하도록 이끌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스컬리너교육연구소에서 ‘다효교육’이라는 명칭으로 프로그램을 특허청 등록(제 40-107751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별로 ‘차사랑나누기’, ‘다효교육’, ‘다도문화 예절교육 및 다도체험’ 등으로 통일되지 않은 표현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볼 때, 다도교육인지, 차예절교육인지 혼동이 되어, 자칫 그 핵심 교육이 되어야 하는 ‘효’를 강조한 특허등록된 교육의 의미를 부각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를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허등록된 명확한 용어를 지속해서 사용해야 한다. ‘다효교육’이라는 상위 개념하에 하위로 각 세부적 교육프로그램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함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다도교육 내지 차예절교육과의 차별화된 효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이미 널리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 차별화 내지 특별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여년 동안 진행되어온 다도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메타분석(이향숙, 2020)한 바에 따르면, 다도교육프로그램은 교육대상자들의 사회성, 정서, 인성발달에 효과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다도와 더불어 효교육이 접목된 프로그램이 ‘다효교육’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교육 대상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효를 접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교육프로그램의 시행 전·후 비교를 통한 교육적 효과 검증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학문적 효과성의 검증 토대 위에 실천적 프로그램이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셋째, 효와 관련된 교재 교구의 개발과 더불어 효지도사들이 역량을 개발하고, 지도사 연수에도 활용하며, 현장에서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효교육 프로그램 교수안 교재개발’도 필요하다. 그리고 교재교구와 더불어 유아나 초등학생 지도를 위한 다양한 교수매체 개발이 필요한데, 예컨대 효동요를 접목할 것을 제안한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전래동요나 창작동요를 활용한 경우, 그 효과성이 높은 것(여정미외, 2020; 이은숙외, 2020, 허정경, 2019; 윤관기, 2018; 주영애, 2017; 김성미외, 2015)으로 나타났다. 효교육과 차교육의 복합프로그램에서도 차예절동요를 활용하는 방법도 적용해 본다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넷째, 효인성교육을 위한 융복합프로그램의 다각화 모색이 필요하다. 토론 논문에서 제시한 다도나 국악을 접목한 프로그램 이외에도 효(HYO)의 확산적 개념을 적용하여, 효와 커뮤니케이션을 연계한 프로그램이나 효와 협동을 연계한 게임 프로그램 등 흥미롭고 다양한 활동성이 포함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사전 검토와 예비조사 등이 진행되어 그 타당성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다섯째, ‘시니어 효지도사’ 일자리 창출의 확산은 고무적이다. 이는 노인 개인은 물론 가정적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시니어 효지도사는 지도사의 역할수행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세대공감을 이끌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다만, ‘시니어 효지도사’에 대한 노

인의 시각과 젊은 세대의 시각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니어 효지도사'에 대한 기대와 활동 요구도에 대한 사전 인식조사를 토대로 '시니어 효지도사'의 필요도와 중요도 등을 조사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활동은 '시니어 효지도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들의 정체성 확립과 실무교육에도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니어 효지도사'들이 시대적 요구에 부합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융복합적 효인성교육을 위한 '시니어 효지도사 역량개발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니어 효지도사'는 새로운 교수방법에 대한 숙지와 지도능력 개발도 힘써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